

統一情勢分析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2002. 6

최춘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요 약>

1. 서언

○본 연구는 부시 美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의 입장을 분석하고 중국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음.

2. 한반도 현안에 대한 美·중의 입장

가. 북한의 핵 의혹

○북한의 핵 의혹과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즉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북한핵 사찰 제기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핵 의혹 해소는 외교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

나. 미국의 핵태세 검토

○미 국방부는 2002년 1월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豫防차원에서 先制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북한, 중국을 포함하고 이는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

- 이에 대해 중국은 駐中 美大使를 소환하고 미국의 “핵공갈”이라고 비난하는 등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되었음.
-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점임.

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목적은 우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게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補償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포기를 촉구하지 않고 있음.

라. 남·북 관계

-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도 남한이 자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사찰, 미사일 개발 포기 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중이후 점차 구체화되었음.
- 중국은 재래식무기 후방배치라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한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과 후방배치가 없이는 북한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건이 실현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마. 미·북 관계

-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제의에 대해 북한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제가 아니라 전제조건과 압력을 행사하는 제의라고 일축해 왔음.
-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 태도로 인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었으나, 북한은 자국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미국과

의 관계 발전에 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결어: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망

○ 전반적으로 중국은 향후 1~2년간은 안정된 주변정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향후 한반도 현안 해결은 한반도 안정을 가장 중시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나,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대북 핵사찰 요구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수용하기를 보다 강력히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핵태세보고서 수정이나 파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국의 핵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북·미 제네바협정 준수, 핵비확산조약국으로의 잔류, IAEA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사찰 등을 점진적으로 수용토록 권유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강력히 권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도 포기하도록 북한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목 차 -

| | |
|-------------------------------------|----|
| I. 서언 | 1 |
| II.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중의 입장 | 2 |
| 1. 북한의 핵 의혹 | 2 |
| 2. 미국의 핵태세 검토 | 4 |
|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 6 |
| 4. 남·북 관계 | 8 |
| 5. 미·북 관계 | 10 |
| III. 결어: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망 | 13 |

I. 서언

- 부시 美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클린턴 미 대통령 당시 지속되어 왔던 원만한 미·중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함으로써 한반도 현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 분위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임.
- 냉각된 美·中 양국관계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해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문제 접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양국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 현안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에게 核 투명성 확보, 장거리 미사일개발 중단과 수출 중단, 휴전선 부근에 前進 배치된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미사일·재래식 군비태세 등 현안이 해결되도록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애매한 태도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 세계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반도 현안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중국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음.

II. 한반도 현안에 대한 美·中의 입장

1. 북한의 핵 의혹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의혹에 대한 북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여 왔음.

- 미 중앙정보부는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미 1개의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금년내에 IAEA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한 경수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2월 13일 하원에서 증언한 바 있음.

○2002년 2월 21일 미·중 북경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있어 투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민들을 굶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對北 認識을 표명하면서도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화재개를 표명하였으며,

-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공식적으

로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북한핵 의혹 제기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핵 의혹 해소는 외교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

○江澤民 主席은 2002년 2월 21일 美·中 頂上會談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는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동시에 표명함으로써 양국 정상간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중국은 미국이 표명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론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위협을 조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는 미국이며 일본 역시 미국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문제는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북한이 신고한 모든 핵물질만을 검증하는 데도 3~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데 있음.

○미국의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북한 핵의혹 주장에 대해

IAEA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영변 핵시설 동결과 임시 사찰팀의 주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IAEA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이 1994년 6월 IAEA를 탈퇴한 이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핵 완전사찰 수용이 타결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국간의 외교적 대화를 주장하고 있음.

2. 미국의 핵태세 검토

○ 미 국방부는 금년 1월 核態勢검토(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미 테러사태이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豫防차원에서 先制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지하 및 동굴을 파괴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핵탄두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

- 미국은 선제 핵공격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7개국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북한,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시키고 있음.

○ 미국의 핵태세검토는 지금까지 核保有 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국의 핵전략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이 향후 재래식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임.

-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선제 핵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강력한 비난으로 표출되었음.

- 중국은 駐中 美大使를 소환하여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미국의 “핵공갈”이라고 비난하였음.
- 중국 외교부는 3월 12일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과 서로 핵무기 조준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된 사항까지도 무시 행정부가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이 중·대만간의 무력사태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데 있음.

- 중국은 현재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국군대가 주둔할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방법을 통한 무력통일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오고 있으나 대만이나 대만을 지원하는 국가가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 사용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점임.

- 북한은 이란, 이라크 등과 같이 핵비확산조약에 서명한 국가이며,

-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핵국가들과 연합하여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는 한, 어느 핵국가도 비핵국가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임.
- 북한은 2002년 3월 6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북 제네바협정까지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였음.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목적은 우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駐韓 美軍 사령관인 토마스 슈바르츠 장군은 美 上院 증언에서 북한 경제가 무기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 관련 수출이 증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북한이 아직까지 국제 테러리즘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믿을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음.¹⁾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화학 및 생물무기를 활용할 능력과 이들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어 북한의 위협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1) “DPRK-US Relations” (NAPSNet Daily Report, March 7, ROK), nautilus.org.napsnet.dr.0203.MAR07.html#item7.

○이에 대해 중국은 현재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아직 4,000km 이하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며,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사일 개발을 무조건 확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북한위협론을 일축하고 있음.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게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적 補償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국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印度 견제라는 자국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파키스탄을 지원한다는 이유와 미국의 대테러 진압 군사작전 수행을 지원한 파키스탄을 미국이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자국의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북한의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수출 역시 중국이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포기를 촉구하지 않고 있음.

○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관련 기술 수출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한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수출은 미사일통제체제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수출을 지속하고 있음.

4. 남·북 관계

○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면서도 남한이 자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사찰, 미사일 개발 포기 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한국은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年頭 기자회견을 통해 今年度 對北 정책은 이미 합의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5대 핵심과제는 중요도 順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임.

○ 이에 대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對南 관계 설정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표명없이 남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식량지원을 적극 수용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 이산가족 관련 인도적 문제와 경제관련 장관회의까지도 취소하는 등 당국간 대화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음.

○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 없이는 미·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중이후 점차 구체화되었음.

- 2002년 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江澤民 主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입장에 따라 중국 外交部는 이례적으로 3월 13일 김영일 북한 외무장관의 방중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권유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었음.²⁾

○ 중국은 이번 임동원 특사의 訪北 역시 자국이 북한에게 권유한 결과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답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강력히 권고하지 않고 있음.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부시 美 대통령의 2002년 2월 訪

2) Agence France-Press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IN BEIJING FOR TALKS," 2002. 3. 13.

韓時(2002. 2. 19~2. 21) 한·미 양국 정상은 대북 공조체제 확립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조화로운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합의·발표한 바 있음.

- 이는 재래식 무기감축에 대한 남북한 협상에 미국이 참여할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미국은 남북한과 함께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임.

○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재래식 무기 후방배치라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한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과 후방배치가 없이는 북한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건이 실현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은 미·북 정치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남북한 3국간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후방조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

5. 미·북 관계

○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제의에 대해 북한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제가 아니라 전제조건과 압력을 행사하는 제의라고 일축해 왔음.

- 북한 중앙방송은 3월 5일 미국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대북 정책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혀왔음.³⁾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부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 태도로 인해 북·미 대화가 중단되었으나, 북한은 자국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 북한의 우선 과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제재 해소에 있으나,
- 미·북 대화 중 특히 미사일수출 문제 해결은 많은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미 대통령의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 발언에 대해 중국은 부시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테러전쟁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해 북한이 미·북 대화를 기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중국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속도를 조

3) Reuters, “NORTH KOREA SETS TOUGH CONDITIONS FOR U.S. TALKS,” March 5, 2002.

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북한은 향후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임.

○중국은 미국이 대북 대화 진전 여부에 관계없이 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자국도 식량지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다만 문제는 실질적인 협상 시기인 바, 중국은 실질적인 미·북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핵 및 미사일 협상은 2002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이 금년 상반기에 아리랑 축전을 성공리에 종결키 위해 주변 안정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미·북간 대화를 재개할 수는 있으나,

- 미국의 특별사찰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판단에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임.

Ⅲ. 결어: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망

- 전반적으로 중국은 향후 1~2년간은 안정된 주변정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정치일정은 무엇보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이 요구되는 시기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과 한국과의 협의와 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적으로 2002년 9월에 개최될 제16대 당대회에서 임기 5년의 차기 총서기,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등을 선출하고 결정해야 되는 후계자 계승문제 등으로 바쁜 국내 정치 일정이 산재해 있음.
 - 또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중국의 당면 과제로 인해 주변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한 해이기도 함.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2002년 3월 全人大 제9기 5차 회의에서 사회안정 유지에 경제개혁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당하기도 하였음.

- 중국의 국내적 상황으로 판단하면, 중국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안정을 가장 중시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나,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해 보다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중·미 관계 발전을 중·북 관계 발전보다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현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과 대테러 군사작전으로 중국의 대미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 판단하였음에도 향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
- 중국 외교부장 唐家璇은 2002년 3월 6일 제9차 전국인민대회 제5 회의에서 국제적인 세력균형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9·11 테러사태 역시 세계질서와 국제형세에 있어서 경제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정치는 평화와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외교부장 唐家璇이 대만 국방장관의 2002년 3월 訪美로 인해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胡錦濤 부주석의 訪美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대만문제가 중·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 胡副主席의 訪美로 부시 미 대통령과의 準 頂上會談을 실현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태세가 변화되지 않는 한, 미·북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정치,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북 관계가 개선되기

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표방한 점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북한, 한국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더욱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기존의 한반도 안정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핵사찰 요구를 북한이 협상을 통해 수용하기를 보다 강력히 권고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핵태세보고서 수정이나 파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망을 돌파할 수 있는 자국의 핵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는 한반도비핵화를 무실케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 동시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북 제네바협정 준수, 핵비확산조약국

으로의 잔류, IAEA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사찰 등을 점진적으로 수용토록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미국이 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에 북한과 맺은 미·북 공동선언 정신에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을 강력히 권유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북한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해야 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미사일 관련 기술은 미사일통제체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라크와 이란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들이 테러지원국으로 완전히 판명되지 않는 한, 중국과 북한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미사일통제체제(MTCR) 규범에 맞게 실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수출 포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보상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어떠한 입장도 피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북한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구하면서 북한 경제난 해소와 탈북자 증가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